호텔신라, 매출 5조·해외 1조 '마의 벽' 넘나

中 따이공·호캉스족 인기 맞물려
한한령 완화에 면세점·호텔 호황

상반기 매출 2.3조·영업익1137억
순이익 843억… 작년 대비 3.3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호텔신라 연간 실적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매출	14,524	17,984	22,196	22,970	29,090	32,517	37,153	40,115	23,004
영업이익	780	975	1,293	866	1,390	772	790	731	1,137
당기순이익	497	561	1,010	108	735	185	278	253	843
시가총액(연말기준)	10,900	15,100	17,300	26,100	35,900	30,300	18,900	33,300	42,300
주식증가(연말기준, 원)	27,750	38,500	43,950	66,500	91,400	77,300	48,150	84,900	102,500(10월2일 종가기준)

/자료=연합뉴스

호텔신라가 올해 중국 보따리상(따이공)과 호캉스(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업계는 호텔신라가 연 매출 5조원 시대를 열지 주목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올해 상반기 매출 2조3004억원, 영업이익 1137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843억원으로 작년 연간의 3.3배에 달했다.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이 있는 3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관측되면서, 올해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호텔신라가 이 같은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 4조원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4조115억원, 영업이익은 731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호텔신라의 올해 연간 매출이 5조원대를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호텔신라의 매출 90%는 면세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호텔과 레저사업부로 나뉘는데, 올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보따리상이 몰리는 등 면세 수요가 증가했고, 수수료율 인하 분위기, 호캉스 인기 등이 맞물리면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모두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사드로 인한 한한령이 완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실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텔신라의 해외 매출도 업계 최초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국내 면세점 업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이상 향수·화장품 카테고리 전체), 마카오 공항(전 품목·합자) 등 공항 면세점과 태국 푸껫, 일본 도쿄(이상 합자)에 시내 면세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은 이부진 사장이 경영에 뛰어든 지난 20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지난 8년간 호텔신라의 매출은 2010년 대비 2.7배, 주가는 2010년 말 2만7750원에서 2일 종가 기준 10만2500원으로 3.7배 뛰면서 외형 및 실적 성장세를 이뤘다는 평가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매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이어 3, 4분기에도 큰 변화가 없는 한 실적 증가세를 보여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보험설계사 정보공개… 소비자 피해 막는다

금융위 'e-클린 보험시스템' 구축
내년 하반기 상용화 '알권리 증진'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General Agency)에 소속된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4일 보험모집 단계의 개선방안 중 우선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건전화 방안 Part Ⅰ'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보험설계사의 이력은 담지않는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따른다.

금융위는 e-클린 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 부터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계약 유지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급격히 성장한 GA는 지난 6월 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도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생명보험 기준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63%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29%)의 두 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성명,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를 보험설계사 등록번호(보험협회)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조회 가능하다. 단,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조회 허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500인 이상 대형GA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인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소속 설계사 수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GA가 이 같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속 미이행시 스트라이크아웃(Strike Out)제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공시한다.

특히 당국은 보험계약이 최소 1~2년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권유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했다. 일명 철새 설계사는 소속사 변경 시 부당한 승환계약을 권유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게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설계사 또한 본인의 모집관련 모든 정보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해 자기정보 관리 기회 제공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GA의 불완전판매의 싹을 자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제공에 동의해도 집적기간이 짧은 신규 설계사의 경우 '신규'로, 정보제공에 미 동의한 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기재해 불완전판매율을 청약서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단 설계사 개인이 정보제공하는 것에 미 동의해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적을 것 같다"며 "특히 설계사들은 입사 초기에 지인영업으로 많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신규 설계사들의 정보는 집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지는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식을 가졌다. (왼쪽 네번째부터)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대엽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이사장, 민병덕 재단 공동이사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이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산업 노사 2000억 공익재단 설립

임금인상분 출연 등 연내 1000억 조성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2000억원대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단 설립을 위해 노측은 올해 임금인상분 2.6% 중 0.6%포인트를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고 사측도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내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2012년, 2015년, 지난해 공동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을 더해 전체 기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단위의 노사공동 재단은 이번 공익재단이 최초라고 금융산업 노사는 전했다.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편, 공익재단 이사는 노측과 사측 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대표이사장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선임됐다 /유재희 기자

외국인 직접투자 상승세… 4년연속 200억弗 달성 가시화

산업부, 1~3분기 신고액 41% 증가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192억달러로 작년 대비 41.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31.9% 증가한 11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투자가 작년 대비 63.1% 증가한 51억3000만 달러(이하 신고 기준)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26.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운송용 기계와 전기·전자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유통, 레저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은 작년 대비 41.0% 증가한 40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21.3%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화공, 운송용 기계, 기계장비·의료정밀이,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통신,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유통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중국은 292.7% 증가한 23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12.4%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금속이, 서비스업에서는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운수·창고에 투자가 집중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5.0%를 차지하는 일본은 화공, 전기·전자 분야에서 과잉설비 우려로 투자가 축소되면서 작년 대비 42.6% 감소한 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운송용기계, 화공,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101.7% 증가한 8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과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활발한 게 특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대부업체 등록증 확인·계약서 보관해야"

〉〉 1면 '전당포 가는 청춘들'서 계속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거래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경우 피해가 더 클 수있다는 것. 지난해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카메라를 맡긴 대학생 김모(23)씨는 " 추석과 만기일이 겹쳐 늦게 전당포를 찾았는데 경매에 넘어가 빌린 돈에 20만원을 더 내고 카메라를 찾았다"며 "휴일을 감안해 주거나 미리 연락을 줄줄 알았다"고 푸념했다.

특히 대부업 등록확인 없이 전당포에서 물품을 맡기고 대출했다간 자칫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거나, 한 순간 전당포가 사라져 물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전당포를 이용하기 전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대다수의 전당포가 대부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대출 전에 꼭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인 지 확인하고 법정이자율(연 24%)을 지키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전당포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대출받기 전 직원을 통해 대부업체 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